

## 성탄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가

정진경 (신촌교회목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1:1).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막10:45).

인생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가장 신기한 일입니다.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인생이 출생합니다. 적나라한 생명이 미지의 세계에 떨어집니다. 그 때마다 사람들은 그 개성을 이룸짓고, 옷을 입히며, 말을 가르치며 이미 살아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어린 생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갈 길을 다가고 나면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중의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지고 역사가 바뀝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자리를 메울자가 없고 그의 무덤은 그의 목적과 이상을 배상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였을 때 이 사실을 뜻깊게 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로 사도 요한은 그때 상황을 “그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계시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와도 그 백성이 대접하지 아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가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오늘과 같았을까? 오늘과 같은 문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가 세상에 오심으로 지난 역사는 발걸음을 멈추었고, 인류의

사상은 기초로부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무너졌던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고, 인류에게 새로운 자유와 생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먼 거리에 있던 영원과 시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위대한 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고로 이 날은 어느 유명한 사람이 출생한 날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분의 성탄을 축하함에 있어서 적어도 두가지 착안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분이 누구일까 하는 그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가 어느 나라의 대사의 자격으로 오셨나, 그가 어느 나라의 임님의 자격으로 오셨나, 아니면 유명한 시인, 학자, 혹은 종교가로 오셨나 하는 착안점입니다. 두번째 물음을 그는 무엇하러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탄생의 목적을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그 분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가 만일 적국의 스파이의 사명을 띠고 오셨다면 어떻게 그를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이신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1절에 보면 그는 "나윅의 자손이요, 아부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역사적 인물임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그 증거는 그가 명백한 족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소설에 나오는 어떤 가공적인 인물이거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어떤 이상을 그려서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부라함의 자손이요 나윅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합니다. 그는 별이 홀인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인간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탄생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그러나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를 하나의 인간 중에서 뛰어난 천재, 영웅, 성현, 위인 또는 선구자 중의 하나로 봅니다. 물론 예수는 도덕적 가치 기준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평가 받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작은 헤아림 속에 담겨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숟가락으로 바다물을 되어보거나 또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인식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사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어떤 계시를 기대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알려진듯, 잡혀진듯 하면서도 어이없이 막연한 것이 하나님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지 않는 한 그는 영원히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입니다. 고로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수육(受肉) 하신 독생자가 그를 나타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은 땅에서 멀었고 땅은 하늘에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잃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방탕과 죄악에서 헤매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 비연속(非連續), 빛나간 대화의 비극 사이에 예수는 오신 것입니다. 고로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엇하러 세상에 오셨습니까? 즉 성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인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의 섬김에는 두가지 대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둘째는 땅에 사는 대중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려 섬겼습니다. 그는 기로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였고, 또 고통스런 십자가를 지려 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대중을 섬겼습니다. 인간을 섬기는 일은 먼저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데서 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같이 인간을 바르게 깊이 이해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가 인간을 섬겼다는 말은 인간이 겪고 있는 죄와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자신이 뛰어들어 함께 고난을 맞보시고 체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 세계와 관계 없는 초월자가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시며,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중을 섬긴다는 말은 대접받는 상층계급이 아니라 약한 자, 눌린 자,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불쌍한** 대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자신의 삶의 자세를 보면 늘 눌린 자의 편에 섰고 가난한 자의 친구로서 사귀고, 버림받은 자, 눈먼 자,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 그들의 삶에 보람과 기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공생애에 나서면서 제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의 눈뜨임을 선포하여, **눌린 자를 놓아주기 위함이라**”(눅4)고 천명하셨습니다.

예수의 경우에는 하늘과 땅에 대한 두 가지 섬김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바로 눌리고 헐벗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대중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

는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섬김의 정신을 잃고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할 때는 그 가치와 생명과 빛을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과 대중에 대한 섬김이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처럼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과 행위, 종교와 문화를 분리하는데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많은데 생활을 통해서 대중을 섬기는데는 지극히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운동가 킹목사는 현대교회는 신조를 강조하는데는 고혈압에 걸려 있고 사랑의 실천에는 빈혈증에 걸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배와 섬김은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늘 밖을 내다보면서 누가 내 힘을 요구하며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창문을 꼭 닫고 밖을 안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밖을 나오셔서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이 걸어가고 고민하는 대중의 골목길로 뛰어들어 그 손을 펴시고 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짓밟힌 사람의 벗이 되어주시고 실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뜻깊은 성탄절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수육의 날로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성탄의 현대적 의미는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고로 오늘의 교회는 이 세상 모든 분야에 과감히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